

## | 교회 및 교우 소식 |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예식과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만찬이 있습니다.
3. 오늘은 "\$1의 행복"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매월 첫째주일).
4. 담임목사 가정 한국 방문: 4월 6일(월) ~ 23일(목)
5. 담임목사 한국 방문 기간 새벽기도회와 금요부흥회는 없습니다.
6. 다음 두 주간 주일예배에는 권순철 목사님(노스웨스트 박사과정)께서 설교를 전해드립니다.
7. 전교인 수련회: 6월 26-28일(금-주일), TWU(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8. 출타성도: 김지훈 봉은미

대표기도 : 4/12 김재영 4/19 김주옥 4/26 김준영 5/3 김현준

## | 지난 주 헌금 |

주일헌금	2, 3, 5, 15, 23, 30, 41, 42, 44, 60, 68, 72, 78, 79, Erin&Leo	\$525.00
십일조	17, 42, 83	\$660.00
\$1의 행복		
감사헌금	40, 41	\$40.00
선교헌금	41, 60, 85	\$50.00
특별헌금		
총계		\$1,275.00

### 헌금 interac e -Tr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 | 4월 사역 안내 |

- #홍리스사역: 4월 1, 15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기도: 3월 30일(월) ~ 4월 4일(토)
- #클로버데일 성금요일 연합예배: 4월 3일(금) 오전 10시, Horizon church(Surrey)
- #부활주일: 4월 5일 주일, 성찬예식, 친교만찬
- #담임목사 가정 한국 방문: 4월 6일(월) ~ 23일(목), 금요부흥회와 새벽기도회는 없습니다.

## |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 신용규 목사 / 어린이부: 임선미 사모 / 찬양: 이호영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이연수 집사 / EM director: 양하원 자매

제18권 14호 2026년 4월 5일



www.hansarang.ca  
18625 Fraser Hwy Surrey, B.C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양팀
*입례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다같이
대표기도		김난형 권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5장 51-58절	다같이
설교	하나님의 최종 판결	신용규 목사
성찬예식		다같이
축도		인도자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마라나타	다같이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교회 1층 Fireside room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부흥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교회 2층 Youth room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삶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정죄했고, 제자들은 흠어졌으며, 모든 기대와 소망은 무너진 듯했습니다. 인간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로 끝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가 옳았다.”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정죄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하시고, 그의 삶과 사역이 참되며 그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음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제자들의 헌신도, 교회의 존재도 모두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모든 말씀과 삶을 확증하셨고, 그를 따르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믿음의 삶을 무의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참되며,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판결 위에 서 있는가? 사람의 평가입니까, 상황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언입니까?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운영위원장)  
김준영 장로  
조성은 집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예배팀장: 유성민 장로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주옥 집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박메리 집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행정팀장: 이하연 형제

**[한사랑 Sisters]**

회장: 김미나 권사  
부회장: 임형선 집사  
부회장: 조성은 집사

**[한사랑 청년부]**

멘토: 김현준 집사 & Anna Bomhof

**들어가는 이야기**

- 과연 누가 옳은가?
- 인간의 판결이 항상 옳은가?
-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한 자들

**성경 이야기**

-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은 틀렸다
-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 부활은 하나님의 판결이다
- 로마서 1:4
- 사도행전 2:23-24
- 고린도전서 15:14
- 죄의 끝은 사망이다
- 믿음의 끝은 생명이이다
- 

**나가는 이야기**

- 하나님의 판결을 바라보라

**묵상을 위한 질문**

- 억울하게 감옥을 가거나 법의 판단을 받는 일이 있습니까?
-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 영향을 미치지 말해봅시다
-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생활과 삶이 부럽게 느껴진다면 그리고 신자의 삶이 지난하고 고통스럽게만 느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봅시다